

휴가철 코로나19 '비상'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광주·전남 내달 1일까지
백신 접종자도 모임 제한

수도권발 코로나19가 광주·전남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등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휴가시즌 전염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

방역전문가들은 수도권발 코로나 유입 통로인 송정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강도 높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 등을 내놓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후 광주와 전남 등 전국 모든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다만 백신접종 최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른바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4명 기준 예외를 권고하고 적응 여부는 자치단체 재량에 맡겼는데, 광주시는 돌과 감염자(백신 접종 후 감염)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좀 더 깊은 내부 논의를 거쳐 19일께 접종완료자의 예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도는 또 같은 기간동안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동자 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조치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본격적인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확산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의 지난 1주일간(11~17일)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6.7명으로, 직전 1주일간(4~10일) 평균 10.3명과 비교해 60%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발 감염이 지역 내로 확산되는 등 광주도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

광주는 이날도 오후 2시 기준 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 중 8명이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 영여학원 관련자다. 광주는 지난 9일 21명의 대규모 신규 확진을 시작으로 최근 10일 기준 하루평균 17명대를 기록 중인데, 특히 서울 등 타지역 관련이 80명을 넘어섰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선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사적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어려울 듯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까지 일본 측과 협상을 해본다는 입장이며 막판 급반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일단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운용을 안정화하는 협상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尚) 총괄공사가 국내 언론인과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폄하하면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막판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모두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정치권에서는 19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이후에 방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일 문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할 경우 김 총리를 대신 보낼 수 있으며, 주례회동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마저 가지 않을 경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급반전' 가능성도 거론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광주의 한, 자유민주·경제번영 승화"

5·18묘지 참배 민심 겨안기
찬반 충돌 총장으로 일정 취소

범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5·18과 경제'를 화두로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다. <관련기사 3면>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5·18 민심 겨안기'에 할애했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AI)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민심에 다가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후 감정에 북받친 듯 목이 잠긴 목소리로 "참배를 하다 보니 (광주의) 한(恨)을 극복하지는 말아 나오질 않는다"고 운을 뗐 뒤 "이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를 흘린 열사와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대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고도 산업화와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썼다.

윤 전 총장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직후 5·18 민주화운동 구속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서울대 법대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는 여론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는 문제는 개헌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3·1운동이나 4·19정신과 비취 5·18

정신 역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기에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오후에는 인공지능사관학교에 들러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면서 "청년들이 신성장산업으로서의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국방과 안보영역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AI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5·18 최후의 항쟁지인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총장로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나려고 했으나 대학생진보연합과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일정을 취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거리두기? 우리 관심 없어요"

18일 새벽 0시,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는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마치고 술집에서 일시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관련기사 6면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시대 안심 여행지 - 보성 대원사길 >11면

광주 체육회장 직무 정지 파문 >18면

예술가 공간-박인환문학관·박수근미술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신나는 여름휴가, 강원도에서 하늘길이 열립니다!

양양 ↔ 제주

플라이강원, 1일 2회 운항 ※매일 운항시간 다름.

양양 ↔ 김포

플라이강원, 7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일요일 운항
7월 24일부터 토요일, 월요일 증편운항

양양 ↔ 대구

플라이강원, 8월 13일부터 매주 금, 토, 일, 월요일 운항

양양 ↔ 부산·광주

리웨이항공, 1일 2회 운항

원주 ↔ 제주

진에어, 1일 2회 운항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